

신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좋았겠지. 그러나 결국, 우리
 앞에 보이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이 평야의 수많은
 사람들이든, 인도로 부를 찾아 떠난 다른 많은 사람들이든,
 집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앞서 말한 사람들의 노동
 덕에 유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든, 자신이 가
 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명예며, 부며, 아내며, 아이들이며,
 친구들이며 하는 것을 언젠가 잃을 운명에 처하지 않은 사
 람은 없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실에 자기가 저
 지른 경솔한 언행의 기억을 더해야 할 걸세. 그러나 자네의
 경우, 아무리 스스로를 돌이켜본다 해도 스스로를 책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자네는 자네의 신념에 충실했으니 말
 이야. 꽃다운 청춘의 나이임에도, 자네는 자연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으로서의 신중함을 견지해왔
 네. 자네가 가진 독자적인 견해는 순수했고 솔직했으며 사
 심이 없었기에, 또한 비르지니에 대해 어떤 부유함과도 비
 갈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기에 정당했어. 자
 네는 그녀를 잃었지, 그런데 자네가 그녀를 잃게 된 것은
 자네의 경솔함 때문도, 자네의 탐욕 때문도, 자네의 그릇된
 식견 때문도 아니니, 그건 다만 자네로부터 사랑의 대상을
 빼앗아 가려고 타인의 정념을 쓰셨던 하느님 당신의 일인
 것이네. 그래 하느님, 자네의 모든 것을 내려준 분이시자,
 자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분이시며, 악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좇아 걸어오는